



“작지만 강한 농업, 꿈이 있는 농촌”

## 농촌진흥청 민승규 청장

농촌진흥청의 역할 및 주요업무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진흥청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업과학기술의 개발·보급 및 국제기술협력, 교육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과 농업인의 복지를 향상시켜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미래대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농업분야 녹색기술 개발·보급을 주력으로 농업의 환경산업·생명산업·미래산업화 기반 구축 등 농업의 부가가치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하고 창의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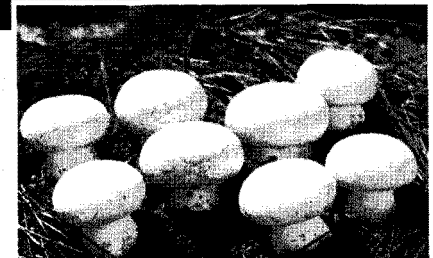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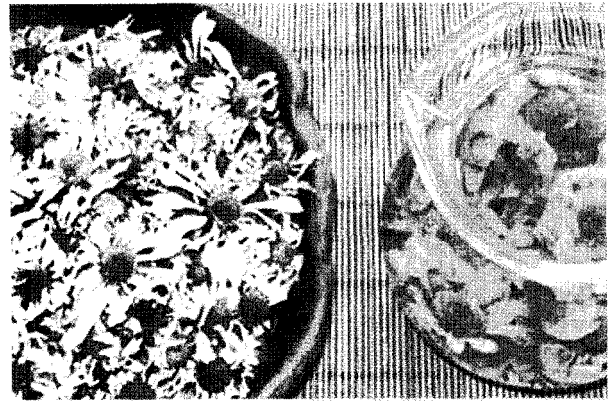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무엇보다도 농업과 농촌에 '꿈과 희망'을 주는 조직으로 전환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의 성과가 농촌 현장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사고로의 전환, 그리고 현장중심의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에서는 다양한 농산업 관련 주요 이슈들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표현한 'RDA 인테러뱅' 발간과 창의적인 의견을 무엇이든 제시할 수 있는 '황당무계 세미나'를 도입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주요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진흥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경제의 기틀로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박중한 책임감을 갖고 농업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잘사는 농촌, 행복한 국민을 위한 “작지만 강한 농업, 꿈이 있는 농촌” 실현을 목표로, 농업을 고부가가치 생산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 친환경 농식품 안전관리 및 첨단 신소재 개발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강소농(強小農)을 육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농구조의 우리농업은 독창적 기술과 아이디어로 소량의 특화된 상품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는데 유리합니다. 강소농 육성은 이러한 가족농 중심의 소규모 농가에게 ‘하버드’는 ‘꿈과 희망’을 주고, 농촌지도사업의 반성과 역량강화를 통해 농정기조인 잘사는 농촌, 행복한 국민을 달성하자는데 있습니다. 꿈과 열정을 가진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경쟁국에 비해 작은 영농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를 ‘작지만 강한 농업’으로 체질개선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강소농은 의욕 있는 농민에게 의욕 바이러스를 심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농가단위 경영진단·분석을 통해 농가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 후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기존보다 10% 이상 소득을 더 올리는 차별화된 농업인으로 육성이 나갈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꿈이 있는 농촌 실현을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  
친환경 농식품 안전관리 및  
첨단 신소재 개발에 집중할 것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축산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한·미, 한·EU FTA 등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의 대부분이 축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입축산분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축산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로 고급화, 차별화 전략으로 맛, 연도, 위생과 연계된 등급

제도 도입과 함께 사육방법의 차별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사육방법의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HACCP인증, 유기축산, 깨끗한 축사(아름다운 농장), 무항생제 사용을 권장하고, 농가위주의 사육에서 소비자위주의 사육으로 농가의식이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대중화,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개량 고급육을 생산하면서도 비육기간을 단축하여 생산비 절감에 힘쓰고, 서민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고기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메뉴 및 요리법 개발과 보급도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는 정보를 분석하여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전문 경영인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가축과 함께하는 "중소기업가"로의 마인드를 갖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축산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책개발, R&D, 지구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청장님의 농정 철학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농업이 모자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지위는 선비보다 못하고, 돈 버는 것은 상인보다 못하며, 힘이 들기는 수공업보다 못하다. 농업에 모자라는 이 세 가지를 없애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三農)사상에 공감합니다.

국가경제의 기틀인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려야 하며, 얼마든지 농업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농업에 희망이 있다!' 그것이 나의 농업관입니다.

한국농업은 더 이상 지원의 대상이 아닌,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돈 되는 산업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농업인, 농업경영체의 '변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 농촌진흥공직자들은 부름 짊어지는 자세로 일할 것입니다.

5~10년 후 청소년들이 장래 희망란에 '농부'를 쓸 수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농업, 꿈이 에너지고 사람이 희망입니다!

인터뷰 \_ 축산물품질평가원 사진 \_ 최순열



이런 축산의 미래  
에 대해  
+ July